

광주·전남 통합 논의 첫발 댄다

연대방식 등 포괄적 내용 담아
조만간 연구 용역 착수
타 시도 사례 검토 대응방안 제언
시·도민 여론조사 등 로드맵 제시

광주·전남 통합의 밑그림을 제시할 연구용역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합 또는 연대 방식과 과정, 효과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27일 광주시,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시와 도는 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 용역 과업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3자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용역 1년,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지난해 11월 2일 합의했다. 공항 이전 등을 둘러싼 시·도 간 갈등으로 용역 일정이나 다소 지연됐다.

용역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광역생활권제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선행 논의 사례를 검토하고 광주·전남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행정 통합과 경제 통합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지역에 맞는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민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각 방식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산업·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영향을 예측하고,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통합 추진 사례도 연구해 지역 실정에 맞는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역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용역에 따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도 관계자는 "시·도가 협의해 과업 지시서를 연구원에 전달했다"며 "연구원에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용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2단계에서는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시 계획에 따라 용역은 올 초 시작돼야 했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통합 시기 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이견 차이, 전남도의회 반발 등으로 관련 예산 확보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광주시, 187억 브릿지 보증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총 187억 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브릿지 보증은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는 징검다리 보증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상황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지원 대상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고(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제청구·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여야 하며, 개인신용평점이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된다.

보증 한도는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보증료는 상환기간에 따라 1년 0.5%~5년 0.9%다. 브릿지 보증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환한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브릿지 보증으로 대출 만기를 맞은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억의 명소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나섰다

광주시 '현장경청의 날' 행사
주민들, 공공개발 등 추진 제안

광주시가 방치된 옛 관광 명소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광주시는 27일 동구 지산유원지 일원에서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용섭 시장, 임택 동구청장, 서정훈 시민권익위원장,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주민 의견을 들었다. 지산유원지는 1978년 개장해 소풍, 수학여행, 신혼여행 등으로 사랑받은 지역 대표 관광지였다.

그러나 1994년 부도 이후 사업 시행자의 잦은 변경,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재는 리프트가, 모노레일 등을 빼고는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상권도 침체해 상인회를 중심으로 활성화 요구가 크다. 주민들은 공공 개발 사업,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동명동·양림동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젝트 등 추진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추억의 장소였던 지산유원지가 낡은 모습으로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예전처럼 지역 관광자원이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27일 오후 동구 지산유원지 인근에서 열린 '제26회 현장경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지산유원지 활성화 등을 논의한 뒤 임택 동구청장과 모노레일을 타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전남도, 국비 74억 확보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의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서 병원선과 노후 보건기관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국비 74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사업 선정을 통해 시설개선에 13억원이 투입되는 함평군보건소의 감염병 전담시설 증축을 비롯해 22개소의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123건, 차량 33대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여수 봉두, 순천 창녕보건진료소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진도 관매도, 서거차도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함으로써 열악한 섬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료시설이 없는 섬 주민에게 무료 순회진료를 하는 병원선 전남511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비 80억원을 지난해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2년까지 모두 127억원을 들여 친환경병원선을 건조, 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동 참사 원인 규명·피해자 보상 적극 협조를”

이용섭 시장, 정몽규 HDC 회장에
추모관 건립·재발방지책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정몽규 회장을 만나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자 보상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27일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차담회를

하고 "지난 23일 정몽규 회장과 만나 100일이 지나도록 추석 명절조차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는 유족,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재판 협조,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추모관 건립, 공사 현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 회장과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 부상자, 시민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과 함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특히 보상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피해자 측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추모관 건립과 관련해선 "정 회장이 추모관 건립을 유족과 동구청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등 9건 적발

전남도가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을 적발했다.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단계 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

역을 우선 선정해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했다.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와 여수는 제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I·자동차 등 거점화 전략 모색 광주경제자유구역 계획 추진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거점화 기반 강화를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발전계획 수립용역 수행사로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경연)이 선정됐으며, 용역은 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 외부 자문을 거쳐 2022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광주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인공지능,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환경분석, 국내외 엔지니어링 및 전·후방기업 유치, 혁신생태계 조성전략, 개발계획 등을 포괄해 광주가 남부권 최상의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과 지역 대표산업(자동차, 에너지 등)의 융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기관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